어제는 운동회

오늘은 문화체험

내일은 이웃사랑

광주 엔돌핀 클럽은 운동회와 여행, 재즈댄스 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음주가무 안해도 건강 엔돌핀 '쑥쑥'

■ '광주 엔돌핀 클럽'

'엔돌핀 팡팡! 스트레스 팡팡!'

직장 상사 눈치 보랴 치고 오르는 후배들 등쌀 견디느라 직장인들은 고달프다. 툭하면 밤늦게 까지 이어지는 회식도 버겁다. 힘든 직장생활에 지친 직장인들이 작은 반란을 꿈꾸고 있다.

술 없이도 즐거운 모임, 스트레스 없는 밝은 사회를 꿈꾸는 모임 '광주 엔돌핀 클럽(http : //cafe.naver.com/kjendolpin)'이 그 꿈의 중심지이다.

광주 엔돌핀 클럽은 직장인을 위한 건전한 문화만들기를 위해 결성된 동호회다. 이 동호회를 대표하는 것은 'NB운동'이다.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인 'NB운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은 하지말고(Not), (But)이것은 하자'라는 것.

음주·흡연·카페인·마약은 하지 말고, 스마일·봉사·문화예술·웰빙(스포츠, 좋은 음식)을 하자는 뜻이다. 거창한듯 하면서도 소박하고, 소박한 듯 하면서도 어려운 운동이다.

회장 이종길씨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고, 힘든 생활의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지인들과 함께 동호회를 결성했다. 회원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운동회를 열기도 하는 등 이들의 새로운 직장문화 만들기가 소문이 나면서 동호회에 가입한 회원이 500명을 넘어섰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은 30~40명 남짓 된다.

이종길씨는 "흔히 술 없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술·담배를 하던 회원들도 금새 동호회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술·담배를 멀리 하곤 한다"며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기존에 익숙한 술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고 몸도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곳에서는 '재미난 풍선아트'·'도전! 재즈댄스'·'해 볼만한 스포츠'·'필요로 한 봉사'·'볼만한 영화'·'재미있는 여행'·'엔돌핀악단' 등의 문화·예술·체험 클럽이 마련돼 취향에 따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술' 자리엔 맛있는 음식과 향긋한 차가 대신한다.

무엇보다 엔돌핀 클럽을 대표하는 것은 '미니 운동회'다. 이종길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차에는 온갖 운동기구가 가득 실려 있다.

500여 회원 건전한 직장문화 만들기 앞장

"새로 가입한 회원들이 운동을 통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족구, 농구, 피구, 배드민턴 등 같이 운동을 하다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얘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 후 함께 먹는 밥처럼 맛있는 밥도 없습니다."

이들은 엔돌핀 클럽이 지식·정보의 품앗이를 위한 동호회라고도 설명한다. 동호회 창단 멤버인 최은주(여·28)씨는 "다양한 직업과 개성, 능력을 가진 회원들이 한데 어울리다 보니 얻는 게 많다"며 "같은 직업군의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재즈댄스, 스키 강습을 해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다양한 회원들 덕분에 경제적으로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엔돌핀 클럽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큰 손을 과시한다. 일손이 필요한 농촌을 찾아 도움을 주기도 하고, 복지관 등을 찾아 사랑을 실천하기도 한다. 다음 달에는 꽁꽁얼어버린 경제때문에 발길이 끊긴 보육원을 찾아 산타로 변신할 예정이다.

가족이 함께 동호회 활동을 나서는 경우도 있다. 여행을 담당하는 허은욱(29)씨는 야무진 총무 허은정(27)씨와 자매 사이. 평소 여행을 좋아해 이곳저곳을 누볐던 은욱씨는 체계적으로 여행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고 있다. 동생 은정씨의 도움도 많이 받는다.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잘하는 데, 동호회 여행 프로그램과 일정을 세우면 동생이 회비를 걷는 등 궂은 일을 척척 처리해 줍니다. 함께 활동 하다 보니 우애도 더 깊어지고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동생 은정씨는 "춤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동호회 활동을 통해 재즈댄스를 배우고 대회에서 상을 받는 신나는 경험을 했다"며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다보니 일의 능률도 좋아졌다"고 밝혔다.

12월엔 아동시설·복지관 찾아 '산타' 활동

회원 정승욱(29)씨는 술·담배를 안 하는 '바른 사나이'로 통한다.

"많은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술을 마셔야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술·담배가 없어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다는 것을 동호회 활동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때는 도서관에만 앉아 있다 보니 여유가 없었고,사회인이 돼서는 직장생활에 바빠 운동할 틈이 없었는데 회원들과 함께 즐겁게 운동을 하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 졌습니다."

주체적이고 다양한 직장인들의 문화를 꿈꾸는 이들은 얼마 전 엔돌핀 악단을 구성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평소 배우고 싶던 악기를 시작해 연말 송년의 밤에서 멋진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엔돌핀 팡팡 스트레스 팡팡'을 외치는 이들은 동호회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해보고 싶은 일과 나아갈 수 있는 무대가 무궁 무진한 만큼 이들의 밝은 외침도 계속될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